



**꽃망울 터트린 영춘화** 19일 서귀포시 신시가지의 한 주택가 담벼락에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준다는 영춘화가 노란 꽃망울을 터트려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강혁만기자

## 풍수해보험 자부담률 최대 15%까지 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가입 자부담률이 최대 15%까지 완화된다며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19일 당부했다.

올해부터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지원 비중을 늘려 총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자부담률은 최대 15%까지로 완화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자부담률도 기존 22.5%에서 8.1~11.25%로 줄었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이다.

풍수해보험은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면적이 크면 지급되는 보험금도 늘어난다.

이상민기자

# 한라산 오름 레이더 마지막 ‘분수령’

도, 2가지 요구 조건 타당성 검토 위한 법률 자문  
국토부 “허가 취소·손실보상 지켜져야 부지 변경”

환경 훼손, 건축허가 위법 논란으로 중단된 ‘제주남부지역 항공로 레이더 구축사업’ (이하 남부 항공로 레이더)이 마지막 분수령을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남부 항공로 레이더 건설 부지 변경 조건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제주도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2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각각 공문을 보내 “제주도가 남부 항공로 레이

더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당시 국토부는 본보와 통화에서 “이 사업의 건축 행위 허가권자는 제주도이고 건축 허가권자는 서귀포시인데, 법률 검토 결과 이들 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건축 재개를 포기해) 부지를 변경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공

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공을 넘겨 받은 제주도는 난감해했다. 국토부 요구를 수용하려면 7억~8억원에 이르는 손실보상금과 함께 자신들이 내준 건축 허가를 스스로 취소하는 ‘정치적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위법한 허가는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지만,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남부 항공로 레이더 건설 허가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토부에 부지 변경을 요청한 이유도 환경보전 측면을 감안한 사회적 갈등과 도민 정서 때문이었지 허가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아니었다.

도 관계자는 “건설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데 이것을 허가 기관이 스

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건설 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면서 “자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측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허가라도 경우에 따라선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어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으면 이미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단 대법원은 행정처분 취소로 나타나는 피해가 행정처분을 유지할 때 발생하는 공익적 피해보다 더 크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월동채소 특화작목 육성  
도 농기원, 올해 16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16억 8000만원을 투입해 월동채소 제주품종 육성 및 이용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현재 ‘탐라홍’ 등 9개 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4개 품종을 통상 실시하고 있다. 올해엔 브로콜리 1품종을 품종 출원할 예정이다. 올해 출원하는 신품종 브로콜리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현되지 않으며 화뢰색이 진하고 노균병 저항성이 강해 상품성과 수량성이 좋은 중만생 품종이다.

농업기술원은 또 비트, 브로콜리 등 2개 작목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한다.

농업기술원은 우리 품종 육성, 이용 확대에 따라 종자 구입비의 3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을 하반기 본격

도, 전담팀 신설·지급 시스템 구축 등 준비 만전  
희생자·유족 8차 추가 신청도 정부에 요구 예정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올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4·3 관련 예산으로 전년(77억원) 대비 59% 증가한 국비 124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 33억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11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부터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은 생존희생자, 4·3희생자 심의·결정순 등을 고려해 4·3위원회에서 순서를 결정하고, 이 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사실조사요원 인력 100여명을 읍면동에 확충했다. 또 상반기 중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4·3희생자별 민법상 청구권자 확인 등 사전준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하반기부터 차질 없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또 4·3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이 가능하도록 국회·중앙부처 등과 적극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에도 유족회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특히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는 지난해 제7차 접수가 마무리됐으나 제8차 추가 접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협의해 나간다.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과 관련해서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과 협력해 대상자 특정을 위한 행정조사도 지원한다.

이 밖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마무리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4·3유적지 단계별 정비,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도 지속 추진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3**  
19일 <17시 기준> 누적 4919

2022 **행복가득한**  
**새해되세요** 謹賀新年

## 친환경 축산, 청정 제주 축산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2 壬寅年 새해에도 우리의 생산업을 지켜가는 사명과 의지로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늘 푸른 이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축협조합장협의회**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김용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강승호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고권진